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
함께 만드는 행정수도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11. 27.(금)	**사진 · 영상**	사진(O), 영상(×)
보도일자	2026년 11월 27일(금)부터		
제 공	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	**김현미**	☎044-300-7030

[2027 본예산안 심사]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, 교육부 점검 C등급 세종 대학 앵커사업… 운영 내실화 촉구

– 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행정수도에 걸맞은 인재 양성 전략 마련해야 –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(소담동, 더불어민주당)은 26일 제11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(앵커)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세종시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.

김 의원은 교육부의 앵커사업 1차년도 연차점검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사업 간 연계 강화,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개선 등을 권고받았음에도 구체적인 개선계획 마련과 예산 반영이 미흡함을 지적했다.

또한 “2027년 세종 앵커센터 운영 예산이 약 13억 4천만원에 달하고 누리집 운영에 약 3천만원이 편성됐다. 그런데 사업 알림 게시판에 게시물이 없고 일부 모집공고도 다른 게시판에 등록돼 있어 필요

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"고 지적했다.

이어 '서울앵커센터' 사업운영 플랫폼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업공고부터 평가위원 모집, 사업 선정 및 평가 결과,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체계적으로 공개해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.

이에 집행부는 교육부 연차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 센터와 협의해 누리집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.

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사업 참여대학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을 포함해 5개에 불과해 타 시도에 비해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. 이 때문에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야 하며,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당연시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
대학의 여건과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,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과 지역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의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.

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 주요기관의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지역인재 수요의 변화에 대비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,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.